

한국경제신문 1월 2일자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4. 1. 3.

허위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1.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합니다.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
SK 11번가	20%
신세계 (G마켓, 옥션)	15%
쿠팡	10.9%

출처: 각 사 공시 자료

2. 신세계의 수수료는 쿠팡 보다 38% 높습니다.

3. 한국경제는 같은 날 기사에서 수수료가 더 높은 신세계가 쿠팡 보다 소상공인을 더 우대하고 있다고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신세계 (G마켓)

한국경제

PICK ①

"쿠팡과는 다른 길 간다" 승부수 통했다...G마켓의 '부활'

입력 2024.01.02. 오후 5:38

G마켓 별드나...2년 만에 흑자 보인다
신세계 '아픈 손' 부활 조짐

2021년 인수 이후 '적자 늪'
'쿠팡과 다른 길 간다' 전략

중소 판매상 우대·물류비 절감

작년 매출 20% 늘어 반전 성공

쿠팡

한국경제

PICK ①

"팔면 팔수록 수수료 늘어나",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 셀러들

입력 2024.01.02. 오후 6:14

'유통 공룡' 쿠팡 대해부
(7) 납품단가 논란

쿠팡 들어가면 매출 수직 상승
소상공인 입점 희망 갈수록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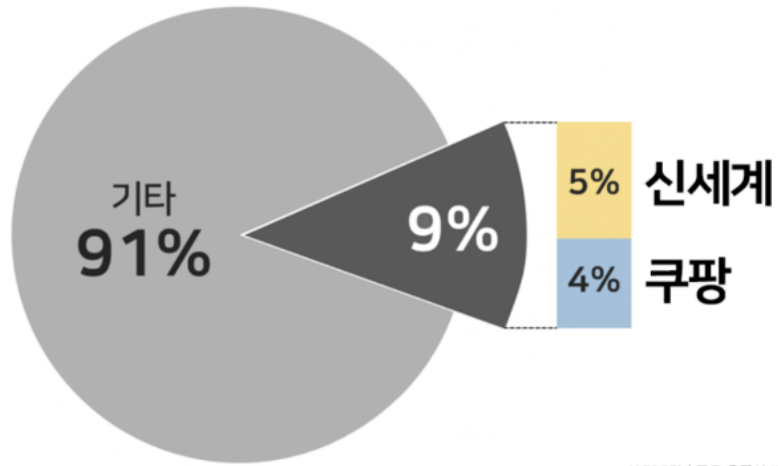
플랫폼 파워 내세워 수수료 압박

유통망 약한 중소기업체 종속 우려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

4. 쿠팡은 재벌유통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 쿠팡의 전체 유통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합니다.



**2022년 주요 유통사 매출
 신세계 계열 (이마트, 백화점, 편의점, 커머스 등/연세점 제외) 9개 유통사업 매출 합산 : 30조4602억원
 쿠팡 : 26조5917억원
 2022년 리테일 시장 602조원 규모(유로모니터, 여행외시 포함)

5. 그간 재벌유통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쿠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폄훼해왔고,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해당 기사 역시 재벌유통사의 쿠팡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 경쟁이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과 거짓에 기반한 반칙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쿠팡은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조치를 즉시 제기할 예정입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